2022.8.14 참사랑교회 주일낮예배 메시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70인 제자 느헤미야
-복음으로 여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6:15–16, 요한계시록 2:10

정윤돈 목사님

*** 느6:15–16**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 계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저희들을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근본문제와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갈등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예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까지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저희들을 사용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결론을 내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생과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결론을 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를 하다보면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안심되는 시점이 있다. 렘넌트들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사장님이 나를 또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하면 일할 때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며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불렀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으면 걱정된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이 열 가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 명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면 구원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야한다. 그래서 말씀, 예배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역할을 했던 모델적인 인물인 느헤미야이다.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다. 그러나 성벽과 성문을 준공하고 재건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너희에게는 많은 고난, 핍박,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10일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명의 황제시대인 핍박을 의미한다. 목숨을 걸었는데도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것이다. 내가 죽을 수 있고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문제가 안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70인 제자이다. 이 사람이 70나라, 70현장, 70산업, 70지교회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다. 70인 제자가 70나라, 70현장과 70산업과 70지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과 인내와 지혜와 집중력과 생명 건 헌신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70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모델적인 인물이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말씀운동도 펴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도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또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 진정한 성벽, 성문을 완성하려면 내가 주인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이다. 내가 주인되는 증거가 화, 낙심, 삐짐, 나 중심, 돈 중심, 미움이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주께 맡겨라. 어떤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늘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야 한다.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면 복음이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된다.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유 있는 순종,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안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내 상처, 내 잘남, 내 집안, 내 사업, 내 돈이 있으면 진정한 샘물처럼 솟아나는 행복이 없다. 우리는 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그런 내가 사소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된다.

1. 첫 번째로는 우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 첫 번째 침공을 당할 때가 BC. 605년이다. 그 전인 BC.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것이다. 또 그 후로 교훈을 받아서 유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신 것이다. 그리고 BC.586년에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3차 침공을 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유다를 멸망시킨 강력했던 바벨론(신 바벨론)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왕은 왕은 조서를 내려 유다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 후로 2차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로 귀환하였고 제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 3차 귀환 때 유다백성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단 52일 만에 백성들을 독려하여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였다.

2. 두 번째로,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1) 느헤미야는 포로의 현장에서 적군의 왕에게 인정받은 렘넌트서밋이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다.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서 포도주나 식사하는 사람은 비서실장급이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받은 렘넌트서밋이었다.

(2)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페르시아 수산 궁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운 현장을 위해 도전한 70인 제자였다. 렘넌트는 자신을 틀에 가두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렘넌트 부모와 어른들은 쉽게 판단하지 말고 믿고, 기도해 주고, 무한대의 문을 어떻게 열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꽉 막힌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방임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방법이 운동, 여행, 취미, 재능을 통해서 잘 관찰해서 진짜 전문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후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과 만남을 열어주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주시는구나.'를 발견해야 한다.

(3)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방해와 모략에 속지 않은 지혜로운 리더였다.

①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대적들은 분노하고 비웃었다. 렘넌트들이 성공하면 반드시 무너트리려는 사람이 나온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되면 화도 났다가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려고 한

다.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성공자의 길을 가면 잘하고 있는데도 깎아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면 누가 별소리를 해도 내가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으로 확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은 다른 힘이 있고, 다른 미래가 보인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이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계속 질문해야 한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진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기도해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한다.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

② 그리고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죽이려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모략에 속지 않았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너무 훌륭하게 건축해서 문짝까지 달면 완성될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네 번이나 유인하였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속지 않았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되면 박수쳐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이 잘되면 박수쳐 줄 수 있고, 존경해 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으로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복음 했으면 완전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4)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집중의 비밀과 방법을 아는 지도자였다. 단 52일 만에 성벽건축을 집중해서 끝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다.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바란다. 어렵지 않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사람은 살리는 것이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응답과 집중은 불신자들도 하늘보좌의 능력과 영적세계를 보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을 받아야 한다.

(5)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리더였다.

① 느헤미야는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유대인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고 이자를 탕감해 줄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려면 많은 돌을 깎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이자와 곡식을 부자들에게 빌렸는데 아들 딸들을 팔아서 이자를 갚는다.'하니까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불러다가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리더로써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5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에스라와 같이 갔던 친인척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이었는데 친인척들도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돈, 곡식을 꾸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친인척이었다. 그러니까 '내 친인척들도 이자를 받지 말게 할테니 너희들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다.

② 또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강함도 보여주었다. 만약에 따르지 않는 부자들은 모든 집과 산업까지 털어 버릴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다. 느헤미야 5장 13절을 보겠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리더는 부드럽기도, 따뜻하기도 해야 하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하겠지만 강인함도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 사랑과 따듯함, 지혜와 강인함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냥 좋은 말을 해서는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자를 가난한 사람에게 탕감해주지 않으면 너희재산을 다 털어버릴 거야.'라고 하는 것이다. 나에게 준 권한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③ 그러면서 자신은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겠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14절 말씀은 표준새번역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6)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공사만 잘하는 리더가 아니고 말씀공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참된 리더자였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완성한 후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운동을 하게 하였다. 에스라는 말씀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리더쉽이 강하거나 성벽을 짓는 달란트는 없었고, 느헤미야는 말씀에 대한 깊이는 없지만 리더쉽은 있었다. 성문을 짓고 적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팀의 응답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이다. 8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지은 강단에 서고, 그 위에서 계속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백성들은 절을 하는데 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때 8장 7절에 보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말씀을 들으면 새가족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8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것이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이다. 여러분이 잘 소화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것이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벽과 성문을 지어야 할 이유를 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다. 먹고 마시고 나눈다고 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이 RUTC성전에 대한 언약이다. 교회가 렘넌트와 성도들의 뜰이 되어야 하고, 사탄과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과 성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의 무너진 영적인 부분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복음화이다.
3. Dream, 꿈이다. 우리들이 만약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고 수리하기 위해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들이 느헤미야처럼 당연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과 절대적인 것들을 위해 집중한다면 절대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만드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기록해보고 한 가지씩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이다.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기록해보고 실천해보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 사탄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느헤미야처럼 집중의 축복과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되기를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과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모든 현장, 불타버린 모든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